

韓國의 金石文

金 昌 鎬*

目 次

- I. 금석문의 의의
- II. 연구소사

- III. 한국금석문 연구의 부수적 방법
- IV. 역 사

I. 금석문의 의의

문자는 일반적으로 종이에 쓰거나 인쇄되어 그 내용이 널리 알려져 후세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종이 이외의 소재 가운데에서 특히 구리·쇠 등의 금속에 새긴 것을 금문(金文), 돌에 기록한 것을 석문(石文)이라 부르고 이를 합쳐서 금석문(金石文)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은대(殷代)에 구갑(龜甲)과 우견갑골(牛肩胛骨)에 문자를 새기는 갑골문이라고 하며,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은(殷)나라 때에는 청동기에 새긴 명문이 있는데 이를 금문(金文)이라고 부른다. 이 명문을 새긴 그릇의 종류가 종정(鐘鼎)이라고 통칭하였다. 이 문자들은 집성한 것으로 송나라 설상공(薛尚功)의 《중정이기관지 鐘鼎彝器款識》라든지 청나라 완원(阮元)의 《적고재종정이기관지 積古齋鐘鼎彝器款識》가 있다. 청동으로 만든 그릇은 위와 같은 제기 이외에도 악기·무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석(石)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전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고(石鼓)가 있다. 어로와 수렵의 사실을 아름다운 시가 형태로 서술한 장편 서사시인데, 큰 돌덩이 열개를 북모양으로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시를 새긴 것이다. 이 석고가 중국에서는 석문(石文)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글자체를 소전(小篆)으로 정리하고 태산(泰山)·낭야(琅琊) 등 석벽에 자기의 공적을 새긴 것이 있고, 한대(漢代) 이후에는 무덤에 세우는 묘비나 건물 안에 세운 많은 기념비들이 있다. 우리 나라 금석문의 그 종류 등이 중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금문이 앞서고 석문이 뒤이어 나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문자를 사용한 근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청동기가 발견되고 있으나 그림만 새겨져 있고 글자는 없어서 우리 금석은 석문이 주가 된다.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에서 한대의 목간이 각각 발견되고 있다. 종이는 후한 때 채윤(蔡倫)에 의해 발명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중국 화남지방에서 널리 이용하였다. 수당대에

* 慶州大學 文化財學科 助教授

전 중국에 걸쳐서 종이를 대신하여 목간(木簡)이 보급되었다.

우리 나라의 금석문은 그 종류 등에 있어서 중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금문이 석문보다 앞서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에 문자를 사용한 자료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청동기에서는 그림만이 음각 되어 있고 글자가 새겨진 예는 없다. 우리 나라의 금석문은 석문이 주가 되고 있다. 고대에는 석벽에 새긴 예가 있으나 비갈류(碑碣類)가 주류를 이룬다. 기적비(紀蹟碑)·묘지(墓誌) 등이 있고, 금문으로는 종명(鐘銘)·조상기(造像記) 여러 종류의 불기(佛器)에 글자를 새기거나 입사(入絲)한 것들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언제부터 종이가 보급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경남 다호리(茶戶里)에서 글씨를 쓰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붓의 발견이나 8세기 중엽에 세워진 석가탑속의 무구정광대타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목판으로 인쇄한 종이가 존재한 점으로 볼 때 낙랑(樂浪)을 통해 종이가 들어 왔고, 삼국 시대에는 종이를 일부 계층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 소사

우리 나라의 금석문 연구는 크게 3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1700년까지의 실학(實學) 이전 시대 1700년에서 1900년까지의 실학 시대, 1900년 이후의 근대 사학의 영향을 받은 이후 시대가 그것이다. 금석문에 관한 연구는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예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금석문 자료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나 실제로 금석문을 수록하여 이용한 예가 있었다. 실학 이전 시대에는 금석문의 내용보다 서예를 중시하였다. 《세종실록 世宗實錄》에도 비문을 탁본케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양난후에는 탁본이 많이 만들어 졌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업적은 이 우(李侯)의 《대동금석첩 大東金石帖》이다. 실학 시대에도 중국 청나라의 고증학의 영향 아래 금석문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김정희(金正喜), 김명희(金命喜), 홍양호(洪良浩), 오경석(吳慶錫) 등이 활약하였다. 그 가운데서 김정희는 《금석과안록 金石過眼錄》에서 북한산비와 황초령비를 신라 진흥왕비로 추정하면서, 비문의 내용에 주목하였고, 사실(史實)의 고증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의 금석문 자료는 청나라의 유연정(劉燕庭)이 1831년에 완성한 《해동금석원 海東金石苑》 16권이 집성되었다.

근대 사학의 영향후의 금석문 자료는 1913년에서 1917년까지 자료 수집을 거쳐서 1919년에 간행된 《조선금석총람 朝鮮金石總覽》을 들 수가 있다. 교감기가 없는 단점은 있으나 문집이나 탁본으로 전래된 금석문 자료도 부록에 실고 결자(缺字)를 보완하지 않았다. 1935년에는 가쓰라기(葛城未治)에 의한 《조선금석고 朝鮮金石攷》란 금석문 연구서가 나왔다. 1967년 이난영(李蘭暎)은 고려시대의 묘지명을 중심으로 《조선금석총람》이후의 자료를 모은 《한국금석문추보 韓國金石文追補》를 내놓았고 1976년에 황수영(黃壽永)은 《한국금석

유문 韓國金石遺文》을 내놓았다. 1984년에 허흥식(許興植)은 지금까지의 금석문 자료를 전부 모은 《한국금석전문 韓國金石全文》 3권을 내놓았다.

Ⅲ. 한국 금석문 연구에는 부수적인 방법들이 있다.

먼저 우리 나라말을 중국의 한자로 표기함에 있어서 음(音)과 훈(訓)을 빌려서 쓴 이두(吏讀)가 있다. 고구려와 신라 금석문에서 연간지(年干支)에 뒤이어 나오는 중(中)자는 ‘~에’란 뜻의 조사로 해석된 예 등이 있다. 이두의 연구는 홍기문의 《리두연구》가 유명하다.

다음으로 이체문자와 우리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한자를 만들어 쓴 점이다. 삼국시대에는 육(肉)자를 宀으로 표기하는 등 이체문자가 사용되고 있으며, 신라 냉수리의 旼자는 중국에서도 그러한 예가 없으며, 창녕비에는 ‘논’을 나타내는 畚(畚)자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으로 피휘(避諱)와 결필(缺筆)의 사용된 점이다. 신라 문무왕릉비에 병진(丙辰)을 경진(景辰)으로 표기한 것은 전자의 예이고, 고려 현화사비(玄化寺碑)에서 요(堯)를 요(堯)로 표기한 것은 후자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서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한자를 은주(殷周) 시대의 고문(古文), 동주(東周) 시대의 대전(大篆), 진(秦)대의 소전(小篆), 한(漢)대의 예(隸), 위진(魏晉) 이후의 해서(楷書) 등으로 시대에 따라서 문자가 변천되었고 상용하는 자체(字體)가 달랐다. 고구려에서는 광개토태왕비는 예서(隸書)로, 모두루묘지는 해서(楷書)로, 평양성 성벽석각은 행서(行書)로 각각 썼다. 백제에서는 무녕왕릉의 매지권(買地券)과 사택지적비(砂宅智績碑)가 있는데, 전자는 남조풍이고, 후자는 북조풍으로 모두 해서이다. 신라에서는 진흥왕의 순수비 등 대개의 금석문 자료는 육조풍(六朝風)으로 된 해서이다.

통일신라에 와서는 처음에는 왕희지체(王羲之體)가 주축을 이루다가 뒤에는 구양순체(歐陽詢體)를 많이 썼다. 흥복사비(興福寺碑)·무장사비(鑿藏寺碑)·봉덕사신종명(奉德寺神鐘銘) 등은 전자에 속하고, 진감선사비(眞鑑禪師碑)·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는 후자에 속한다. 이 때에 활약한 서예가 김생(金生)은 왕희지체의 대가이다.

고려시대 전기에는 구양순체가 유행했고, 서예가 탄연(坦然)은 왕희지체로 문수원기(文殊院記) 등을 써서 서예풍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고려말기에는 조맹부체(趙孟頫體)가 새로이 들어와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안평대군(安平大君)은 조맹부체 곧 송설체(松雪體)의 대가였다. 조선중기의 서예가 한석봉(韓石峯)은 왕희지체로 썼고, 그 뒤의 김정희는 독창적인 추사체(秋史體)로 썼다.

IV. 歷 史

1. 선사 시대

선사 시대의 금석으로는 여러 곳의 암각화가 있다. 경남 울주군 내곡리 반구대, 울주군 천전리, 경북 고령군 양전동 알터, 경북 영일군 인비리, 영일군 칠포리, 전남 여수시 오검동, 경남 함안 도항리, 경북 영주군 가흥동, 경북 영천군 봉수리, 경북 경주시 석장동 금장대 등에 발견되고 있다. 이들 암각화는 반구대와 같이 고래 사슴 등의 동물 문양을 그린 예도 있고, 인비동과 오검동 처럼 마제 석검을 그린 예도 있고, 고령 알터를 비롯한 나머지 유적에서는 이른바 방패형 등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그린 예가 있다. 이들 암각화는 반구대처럼 문양 전체를 쪼아서 새긴 것에서 시작하여 X선 사진 촬영처럼 투시된 것을 거쳐서 굵게 선각한 것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 암각화는 현재까지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 상주리에 있는 남해석각(南海石刻)은 종래에 한국 고대문자로 보아서 '사냥을 하러 이곳에 물을 건너와 기를 쫓다'로 해독되기도 했고, '서불배일출(徐市拜日出)'로 해독되기도 했으나 암각화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2. 낙랑 시대

우리 나라에 중국의 한자가 언제쯤 들어왔는지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부터 진한(秦漢) 교체기에 전쟁의 환난을 피해 우리 나라에 들어온 유이민 집단의 이주와 더불어 한자가 들어 왔다고 짐작되며, 이 시기를 반영하는 유물로 평양 근처에서 발견된 B.C. 222년의 명문이 있는 진과(秦戈)가 있다. B.C. 108년 한사군의 설치와 더불어 중국의 한자로 기록된 금석문 자료가 발견되고 있다. 와당(瓦當) 봉니(封泥) 전(搏) 등에 새긴 문자 자료가 출토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평안남도에서 발견된 점제현신사비(粘蟬縣紳祠碑)는 유명하다.

3. 고구려 시대

중국 문화를 일찍부터 받아들인 나라로 부여를 들 수가 있으나 6세기에 고구려에 병합된 부여의 고고학적인 자료나 금석문 자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부여에 뒤이어 일어난 고구려는 수많은 전적과 금석문 자료를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역사서로는 《유기(留記)》와 《신집(新集)》가 서명만 전해올 뿐이다. 고구려의 금석문 자료는 경주 서봉총의 은합명문, 광개토태왕비(廣開土太王碑), 중원고구려비, 경주 호우총 출토의 호우명문, 평양성 석각, 태천 봉오리 산성 마애석각,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 등의 불상 조상기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광개토태왕비는 100년여 동안에 연구 업적이 쌓이고 있으며, 이른바 신묘년조(辛卯年條) 등을 근거로 한일 양국의 고대 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4. 백제 시대

백제는 건국 이후에 수도를 3번이나 바꾸었다. 최초의 수도인 한성 시대의 금석문 자료로는 일본에 전래되고 있는 칠지도 명문이 유명하나 그 제작 시기와 내용등에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웅진성(熊津城) 시대에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매지권(買地券) 2점 등이 중요하다. 무령왕릉의 발굴은 20세기 한국 고고학의 최대의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비성(泗水城) 시대의 금석문 자료로는 도교적인 문들로 쓴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가 유명하다. 그 밖에 백제의 망국의 한이 서린 평제탑비(平濟塔碑), 유인원비(劉仁願碑) 등은 중국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泌批

5. 신라 시대

신라의 금석문 자료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풍부하게 발견된다. 신라의 금석문 자료는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로 사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성된 금석문이 있다. 두 화랑도의 맹서가 기록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과 개인의 묘지명 역할을 한 순흥어숙지술간묘(順興於宿知述干墓)의 명문과 신라 왕족의 사적인 생활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울주천전리서석(蔚州川前里書石) 원명(原銘)과 추명(追銘)을 비롯한 을묘명, 계해명, 을축명, 계사명 등이 있다.

둘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록된 금석문으로 국왕과 이에 관련된 왕경인(王京人)과 지방민이 등장하고 있으며, 사건의 전말이나 기록의 이유 등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절거리(節居利)의 재(財)에 대한 신라 왕실의 소유 확인과 그 상속자와 보증인들이 기록된 냉수리비(冷水里碑)를 들 수가 있다. 아직까지 비의 성격 규명이 불가능하지만 제의(祭儀)와 관련된 것이 분명한 울진봉평비(蔚珍鳳坪碑)가 있으며, 신라가 주변 지역의 척경(拓境)하면서 세운 적성비(赤城碑)로 창녕비(昌寧碑)가 있으며, 순수관경(巡狩管境)이란 구절이 비문에 나오는 순수와 관련된 북한산비(北漢山碑)·마운령비(磨雲嶺碑)·황초령비(黃草嶺碑)가 있다. 이러한 거국적인 의미에서 작성된 금석문들은 마운령비와 황초령비를 끝으로 종언을 고하게 된다.

셋째로 공적인 입장에서 기록되기는 둘째의 유형과 같지만 국왕이나 당시의 고급 관료가 전혀 비문에 나오지 않으며, 지방민의 역역(力役)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금석문이다. 여기에서는 축성(築城)과 축제(築堤)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축성과 관련된 금석문으로는 명활산성작성비(明活山城作城碑)·안암지출토비(雁鴨池出土碑)·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 등이 있고, 축제와 관련된 금석문으로 영천청제비병진명(永川菁堤碑丙辰銘)과 대구무술명오작비(大邱戊戌銘塢作碑)가 있다. 냉수리비에 개인 재산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보증에 신의를 보인 점이나 적성비에서의 개인이 신라를 위해 죽었을 때에는 그 자식이 아들이던 딸이던 포상을 하겠다는 점 등을 들에 새긴 예는 고구려나 백제 금석문에서는 그 유례가 없어서 지방민

의 민심을 얻는데에 도움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삼국통일의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통일신라시대

신라 시대의 금석문은 인명 표기의 나열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해 통일 신라가 되면 이 인명 표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한 최초의 예가 태종무열왕릉 앞에서 있는 무열왕릉비로 판단된다. 현재 이 비석은 이수(이首)와 귀부(龜趺)만이 남아 있고, 비신은 결실되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그 뒤의 문무왕릉비나 김인문묘비(金仁問墓碑)처럼 중국식으로 인명이나 내용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 흥덕왕릉에서 흥덕왕릉비편(興德王陵碑片)들이 발견되었으나 아직까지 비문의 복원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신라의 우수한 비로는 선종(禪宗) 승려의 비가 있는데 보림사(寶林寺)의 보조선사비(普照禪師碑), 최치원이 지은 낭혜화상비(朗慧和尚碑), 지증대사비(智證大師碑), 숭복사비(崇福寺碑) 등의 사산비명(四山碑銘)이 있다. 불상의 편년에 중요한 감산사(甘山寺)의 두 석불 조상기(造像記)가 있다. 금속에 각명한 예로는 봉덕사신종(奉德寺神鐘)의 명문과 황룡사 목탑의 심초석에서 나온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등이 있다. 종이에 기록된 자료로는 석가탑속에서 출토되어 목판 인쇄물 연구에 중요한 무구정광대타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경과 당시의 그림연구에 중요한 신라 화엄사경의 변상도와 명문, 신라 서원경(西原京) 근처의 4개 촌락의 행정문서가 발견되어 신라의 토지제도 역역 동원, 인구, 가족, 촌 등의 연구에 중요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 등이 있다.

7. 고려 시대

나말 여초에는 선종계통의 승려들은 선사비(禪師碑)를 많이 세웠다. 그 가운데에서 고려 초에는 황해도 해주(海州) 광조사 진철대사탑비(廣照寺眞澈大師塔碑)등 수많은 예가 남아 있다. 경북 칠곡의 선봉사 대각국사비(僊鳳寺大覺國師碑)는 나말 여초의 불교계의 종파 문제에 있어서 선종9산설을 수정하는데 근거가 되고 있다. 경북 예천에 소재한 개심사 석탑기(開心寺石塔記)는 고려초의 군사제도나 신앙조직 공동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시기의 민간 조직을 아는 데에는 비록 종이에 기록되어 있으나 경북 약목의 정토사형지기(淨土寺形止記)가 중요하다. 통도사국장생석표(通度寺國長生石標) 등은 사원 경제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 경남 거제의 하청부곡북사종명(河淸部曲北寺鐘銘)은 전기의 부곡제 연구에 중요하며, 충북 청주의 용두사철당간기(龍頭寺鐵幢竿記)는 나말여초의 지방 학교 제도 해명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고려 전기부터 관료중 3품이상은 무덤안에 묘지를 넣었는데, 당시의 서울이었던 개성근처에서 많이 출토되어 과거제 연구의 자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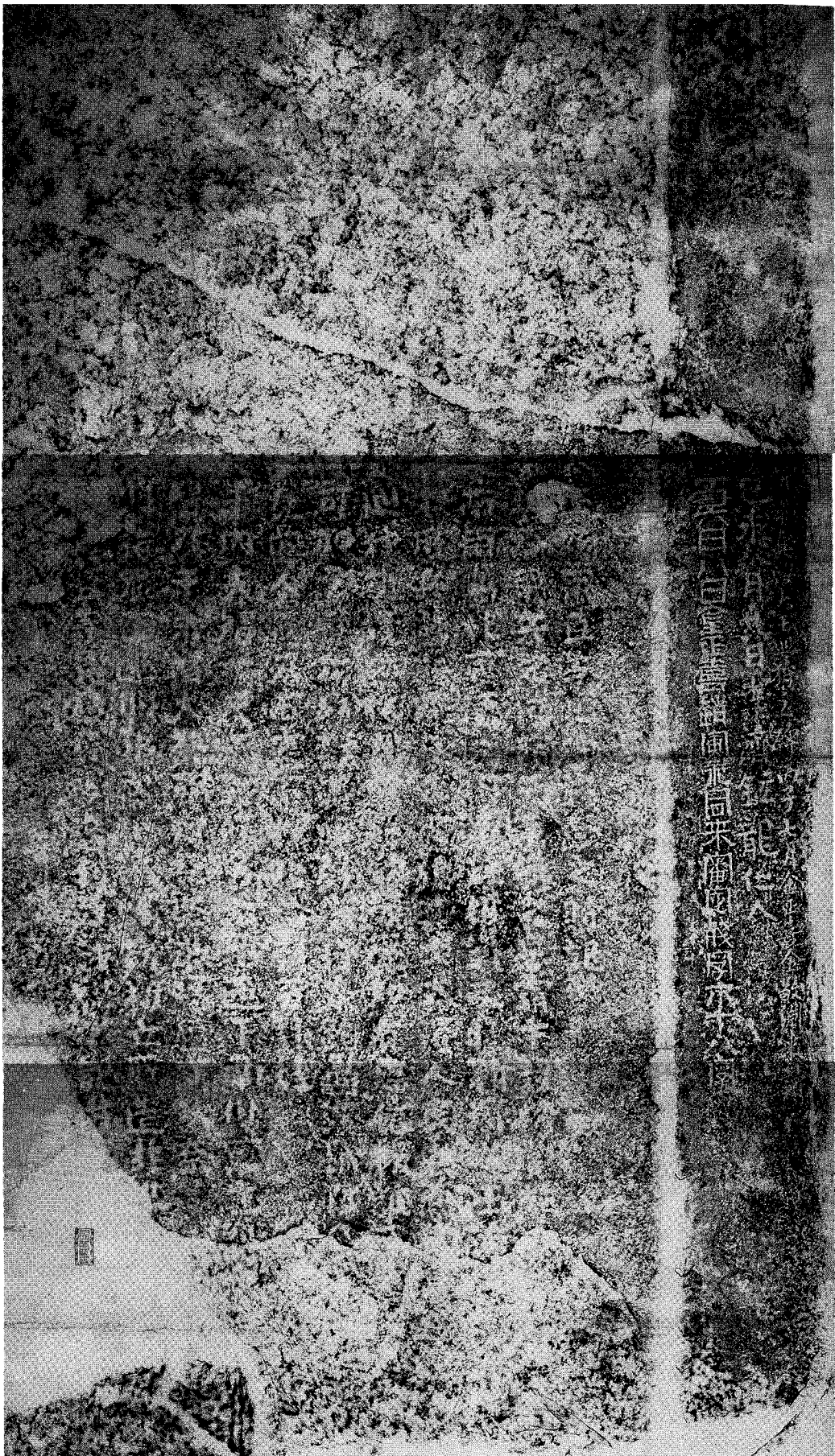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여진과 몽고의 침입 등으로 대장경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합

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대장경은 유명하며, 상대적으로 이 시기의 금석문 자료는 부족하다. 전남 승주에 소재한 월남사진각국사탑비(月南寺眞覺國師塔碑)는 수선사 해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선사(一然禪師)의 인각사보각국사탑비(麟角寺普覺國師塔碑)는 왕희지의 행서체로 집자되어 있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서체의 연구에도 중요하다.

8.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 있어서 금석문 자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못하다. 이 시기에 관한 사료인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가 일차적인 사료이고, 문집·고문서·읍지 등의 사찬 사료도 풍부하여 이 시기 금석문의 연구는 거의 진전이 없다. 조선 시대에는 무덤과 관련하여 왕의 칙명(勅命)에 의해 작성되는 묘비, 4품이하의 관리가 세우는 묘갈(墓碣), 누구나 세울 수 있는 묘표(墓標), 무덤 안에 넣는 묘지(墓誌)가 있다. 이 가운데 중 중요한 것은 문집에 실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조선 시대의 금석문 자료로 서울 송파동에 소재한 삼전도비(三田渡碑)는 한자·몽고자·만주자의 세가지 문자로 된 점이 유명하다. 이 비가 인조때 청에 항복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인위적인 파실이 심하다. 한글로 된 비로는 서울시 하계동에 이찬묘비가 있다.

* 日本 天理大學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今西文庫중 北漢山碑의 탁본 사진을 실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온 이 비에 대한 판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北漢山碑